

‘실력 광주’ 추락 큰일났다… 학교장들 “학습 자율권 달라”

■ 광주 고2 학업성취도 분석, 비상걸린 학교들

방과 후 자율학습·보충수업 등 개선책 절실

광주지역 고교 학력 수준이 최상위 권에서 중위권으로 추락하자 일선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평가에 응시한 고2는 내년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예비수험생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다.

광주지역 학교장들은 학력 저하가 확인된만큼 광주시교육청이 규제를 풀어 학교에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일 광주일보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 광주지역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교와 송덕고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이들 학교는 재학생 전원이 보통학

력 이상으로 학업이 극히 부진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의미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인 송덕고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보통학력 100%를 달성했다. 같은 자사고인 송원고는 99.3%(국어 99.5%, 영어 100%, 수학 98.5%)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는 대광여고가 98.7%(국어 99.1%, 영어 98.3%, 수학 98.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일여고(98.5%), 송일고(97.7%), 광덕고(97.4%), 문성고(96.8%), 대동고(96.6%), 대성여고(96.1%), 고려고(95.8%), 중앙여고(95.8%), 설월여고(95.5%) 순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도 ‘공저사고(公低私高)’와 ‘여고강제’ 현상은 확인됐다.

상위 20개교 중 국·공립은 광주과학교와 상일여고, 문정여고 등 세 곳 뿐이었다. 나머지 17개교는 사립이었다.

또 여고는 20곳 중 8곳을 차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영어 등 언어영역은 여학생들이, 수학은 남학생들이 크게 앞섰다. 국어는 상위 20개교 중 13곳이 여고인데 반해 수학은 3곳에 그쳤다.

광주지역 교장들은 학력 저하가 현실화된만큼 학력 향상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깨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건강권과 인권 존중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해온 학습환경을 완화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과후 자율학습·심화학습·보충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A고 교장은 “교육청의 학습시간에 대한 규제도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절대학습량이 크게 줄었고 이게 실력

저하로 이어졌다”며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만큼 교사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45)씨는 “정차·사회 등 전 분야에서 호남인재가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실력뿐”이라며 “장래가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력향상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반응은 달랐다. 학력이 3년 연속 향상된 고2 학교 비율이 53개교 중 21개교로 학력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 연속 학력이 향상된 학교가 많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며 “일선 학교에서 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계지리 8번 문항 잘못냈다” 집단 소송

수험생 38명 제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

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

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어졌다”며 “이 문제는 ‘정

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과 관련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연합뉴스



“모두 함께 따뜻한 겨울을”

1일 오전 광주시 남구 송하동 남선연탄 공장 근무자들이 갓 만들어진 연탄을 차곡차곡 쌓으며 트럭에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성수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루 평균 17만여 장의 연탄이 생산돼 광주와 전남·북 지역으로 배송된다.

‘물염치’ 中 어선들

기상 악화로 우리측 해역에 긴급 피난을 요한 중국 어선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법 타망 조업을 벌이다가 해경에 걸려 나오됐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7

시20분께 신안군 흑산도 서방 약 40km 해상에서 조업 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타망 조업을 한 혐의(무허가 불법조업)로 단동선척 80t 급 요단어 2513호(승선원 각 10

흑산도 피난왔다 귀국길

불법 타망 조업 3척 나포

명) 등 3척을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기상불량 시 불법조업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지난달 29일 새벽을 틈타 허가

된 그물코(타망 54mm)보다 작은 그물코(10mm 가량)를 사용해 멸치 등 11여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지난달 27일 기상 악화로 대흑산도에 긴급피난을 왔다가 자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2013년 시도교육청별 성취수준 비율(%)

◇ 중학교

총3	국어			수학			영어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86.1	12.3	1.6	68.6	25.7	5.7	76.8	19.4	3.8
부산	87.1	11.8	1.1	70.0	26.0	4.0	77.5	19.7	2.8
대구	88.7	10.4	0.9	73.3	23.2	3.5	79.2	18.3	2.5
인천	89.3	9.9	0.8	67.6	28.8	3.6	77.2	20.6	2.2
광주	85.0	13.5	1.5	67.4	26.8	5.8	75.4	20.8	3.8
대전	87.9	10.6	1.5	68.6	26.7	4.7	76.4	20.5	3.1
울산	89.5	9.9	0.6	72.8	24.7	2.5	81.2	17.2	1.6
세종	84.0	14.3	1.7	57.7	35.2	7.1	68.1	27.7	4.2
경기	84.6	14.0	1.4	62.8	31.1	6.1	72.5	23.6	3.9
강원	83.9	14.2	1.9	56.8	35.8	7.4	68.2	26.9	4.9
충북	90.5	9.2	0.3	71.8	26.1	2.1	82.8	16.3	0.9
충남	84.1	14.6	1.3	58.9	35.7	5.4	69.4	27.4	3.2
전북	84.8	13.1	2.1	63.2	29.4	7.4	69.7	25.4	4.9
전남	83.7	14.9	1.4	61.0	32.9	6.1	70.2	26.0	3.8
경북	88.6	10.3	1.1	72.6	24.1	3.3	78.9	19.0	2.1
경남	84.7	14.0	1.3	65.4	29.7	4.9	73.4	23.3	3.3
제주	88.5	10.2	1.3	73.2	22.8	4.0	78.8	18.2	3.0
평균	86.1	12.6	1.3	66.3	28.5	5.2	74.9	21.7	3.4

◇ 고등학교

고2	국어			수학			영어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
서울	78.8	16.2	5.0	81.4	12.2	6.4	81.9	14.0	4.1
부산	89.8	9.2	1.0	90.9	6.7	2.4	90.2	8.3	1.5
대구	88.8	10.0	1.2	90.1	7.4	2.5	90.9	7.8	1.3
인천	87.1	11.5	1.4	89.2	8.0	2.8	87.8	10.6	1.6
광주	89.7	8.8	1.5	90.1	7.1	2.8	90.4	8.1	1.5
대전	88.0	10.7	1.3	90.8	6.7	2.5	90.6	8.2	1.2
울산	88.3	11.2	0.5	91.4	6.9	1.7	92.1	7.2	0.7
세종	78.6	19.1	2.3	74.4	18.2	7.4	76.5	18.4	5.1
경기	79.2	17.0	3.8	79.7	13.7	6.6	79.9	16.2	3.9
강원	84.4	13.4	2.2	83.0	12.1	4.9	82.3	14.8	2.9
충북	91.7	7.8	0.5	94.2	4.7	1.1	94.0	5.4	0.6
충남	83.9	14.3	1.8	90.5	7.2	2.3	88.4	9.8	1.8
전북	86.3	11.2	2.5	85.8	9.9	4.3	85.5	11.7	2.8
전남	86.3	11.7	2.0	86.9	9.4	3.7	86.0	12.0	2.0
경북	88.8	10.1	1.1	91.2	6.5	2.3	90.5	8.2	1.3
경남	83.6	14.1	2.3	84.9	10.8	4.3	84.5	13.0	2.5
제주	89.3	8.3	2.4	89.6	6.9	3.5	89.3	8.4	2.3
평균	83.6	13.5	2.9	85.2	10.3	4.5	85.0	12.2	2.8

지난달 자살한 장애인 대포폰

누군가 두달간 860만원 썼다

‘요금 폭탄’ 독촉에 괴로워해

10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로 개설한 뒤 무심코 넘겨준 ‘대포 휴대전화’가 보이시프시 범죄에 사용돼 수천 만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발생한 데 따른 자책감에 이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광주일보 11월 29일자 6면>이 수 백 만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요금 독촉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한 전화)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지능화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명

의로 개통한 5대 중 한 대의 요금 미납액이 소액결제·시외전화 등을 포함, 860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수백만원의 통신요금 미납으로 벌일 압류 등이 진행돼 자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민하던 경찰·동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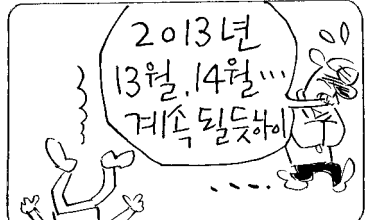
경찰은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수백만원의 요금 문제 등으로 고민해 온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93건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418건으로 4.5배 증가하는 등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담건수만 620건에 달하는가 하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원침



친척에 흥기난동 10대

향소심서도 무기징역

부모를 무시한다면 마구잡이로 흥기를 휘둘러 친척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10대가 향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한 향소심에서 피고인의 향소를 기각했다. 김군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김군은 지난 3월 3일 0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작은아버지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친척들을 상대로 흥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살해하고 조부모 등 친척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친척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김군은 할아버지 생일 모임을 끝내고 잠든 친척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폭설에 배달 못해” 종업원에 주먹질

○“폭설 때문에 배달을 하지 못하겠다는 종업원과 시비, 폭력을 휘두른 40대 중국집 주인 등이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여·44)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유동동 자신의 중국집에서 사춘(36)과 함께 “눈이 내려 배달을 못하겠다”는 배달원 한모(45)씨의 먹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박씨 등은 “한씨가 ‘눈이 내려 오늘 일 못하겠다’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아파트]					
2013타경 18669	1	북구 설촌동370번길 27, 102동 1층 106호 [상각동 모아호아파트] 59.59㎡	아파트	95,000,000 95,000,000	임차인있음
2013타경 19234	1	남구 회재동1186번길 29, 13동 12층 1206호 76.75㎡	아파트	117,000,000 117,000,000	임차인있음
2013타경 20098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중앙아파트 111동 6층 606호 49.96㎡	아파트	75,000,000 75,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2878	1	서구 능성동 35 126㎡ [공유자율만근의지분 대 5분의1전부] 서구 상부대로 1200-6 33.76㎡ 부속건물주권16, 12㎡ 부속3, 6㎡ [목욕1과지분동일] 부구 개령동 338-10 164㎡ [공유자이경준지분10분의2전부] 동구 구성로238번길 28 30.6㎡ 제1외 및 전도 17.5㎡ [목욕1과지분동일]	단독주택	13,389,940 13,389,94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일괄매각, 부속건물공부외면적외전대있음
2013타경 13991	1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 709-1 575㎡ 동소 709-1 48.5㎡ 부속건물 사무소및창고 45.36㎡ 제1외의 가추 등 23.1㎡	전	21,105,600 21,105,6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제1외의 건물포함, 일괄매각, 임차인있음
2013타경 18798	1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 709-1 575㎡ 동소 709-1 48.5㎡ 부속건물 사무소및창고 45.36㎡ 제1외의 가추 등 23.1㎡	대	61,828,580 61,828,580	일괄매각, 제1외의 건물포함, 제1외의 태양광발전설비배락제외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3949	1	나주시 왕곡면 신현리 496-4 404㎡	전	6,464,000 6,46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7552	1	영광군 고남면 남창리 487-1 278㎡ [현황: 전]	전	556,000 5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유지
	2	동소 960 499㎡ [매각제외타인소유경수다소수채]	전	3,043,900 3,043,900	대장및현황유지
2013타경 12424	1	담양군 봉산면 외우리 산53-1 9803㎡	임야	598,972,000 598,972,000	현황일부묘지및전
2013타경 12998	2	동소 산53-7 453㎡	임야	16,761,000 16,761,000	현황전
2013타경 12998	3	동소 449 10896㎡	임야	206,834,000 206,834,000	현황축목성태.분묘소채

사건번호	매 각 물 건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물건 번호	소 재 지 및 면 적 [㎡]				
2013타경 12424 2013타경 12998 [복합]	4	담양군 고서면 고림리 산20-1 9620㎡	임야	18,278,000 18,278,000	분묘소채	
	5	동소 산20-3 47306㎡	임야	80,420,200 80,420,200	분묘소채	
	6	동소 산22-1 18645㎡	임야	31,696,500 31,696,500	분묘소채	
	7	동소 산22-2 4562㎡	임야	8,211,600 8,211,600		
2013타경 15843	1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915-11 1339㎡	답	46,865,000 46,86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	동소 916-12 1722㎡	답	60,270,000 60,2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2013타경 16198	1	담양군 수북면 풍서리 940-39 583㎡	임야	9,328,000 9,328,000		
2013타경 19081	1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341-7 3974㎡ [현황: 과수원] [과수목 [유실수]포함평가]	임야	295,702,000 295,702,000	매각외건물존재함	
	1	남구 서동 55-5 56㎡	대	25,760,000 25,760,000	현황나대지	
2013타경 19661	1	영광군 군서면 보리리 산125 4760㎡	임야	12,376,000 12,376,000	분묘소채	
2013타경 2034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8746	1	서구 군본2로 54, 지하1층30에이호 [화정동, 금호동] 52.40㎡	근린시설	180,000,000 180,000,000	현황초상당시관리 비금36,874,080원 이미납원상태임	
	2	동소 54, 지하1층30비호 [화정동, 금호동] 52.40㎡	근린시설	180,000,000 180,000,000	현황초상당시관리 비금25,210,010원 이미납원상태임	